

# 한 해를 마감하는 젊은 영화인들의 함성

서울독립영화제 2009 (12.10~12.18)



〈회오리바람〉

서울독립영화제가 올해로 35회를 맞이했다.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와 스폰지하우스 중앙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역대 최다인 722편의 예심작 가운데 본선에 오른 45편의 영화와 초청작 24편, 특별 초청작 15편 등 총 84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예심작은 많아졌지만 작년보다 상영편수는 줄었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작년에 비해 작품 상영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독립영화제가 택한 슬로건은 ‘치고 달리기’. 얼핏 35회의 연륜에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표어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올해 독립영화가 이뤄낸 성과에 가장 어울리는 슬로건이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겸한 감독 모임에서 조영각 집행위원장은 “올해 독립영화는 예상하지 못했던 몇 개의 흥편을 날렸다”며 “단순하지만 끊임없이 치고 쉽 없이 달리는 역동적 실천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번 슬로건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독립영화제의 예심을 맡은 심사위원들은 “올해 본선에 오른 작품들의 화두가 ‘88만원 세대’를 보내는 청년남녀의 고민이었다”고 밝혔다. 젊은 감독들의 작품이 많은 만큼 피해갈 수 없

는 주제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밖에 노인,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룬 영화, 노동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장르가 불분명한 실험영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총 5,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이번 영화제에선 단편 34편과 장편 11편이 경쟁을 벌인다. 최고상인 본상 대상에는 상금 1,500만 원이 주어진다. 작년에는 김국 감독의 〈고갈〉이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또 올해는 독립스타상이 신설되었는데, 배우와 스태프 부문으로 나누어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서울독립영화제는 한국 독립영화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화제로,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들도 다수 상영된다. 2009 밴쿠버국제영화제 용호상을 받은 장진재 감독의 〈회오리바람〉과 칸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부문 수상작인 조성희 감독의 〈남매의 집〉을 비롯 홍형숙 감독의 다큐멘터리 〈경계도시 2〉 등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작품들도 상영된다. 그밖에 전수일 감독의 〈영도다리〉와 정유미 감독의 〈먼지아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독립영화제의 개막작은 민용근, 이유림, 장훈 감독의 옴니버스 영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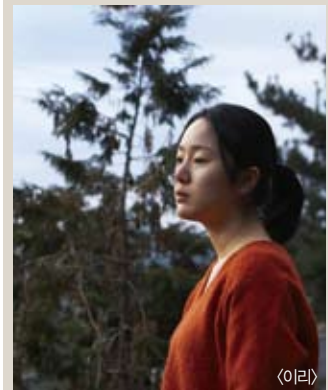
나잇 스탠드〉. 스폰지하우스 중앙1관에서 열리는 이번 개막식에선 불나방 스타쏘세지클럽 밴드의 라이브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폐막작은 본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또 특별전에서는 장률 감독의 전작과 필리핀 독립영화 7편이 소개되며, 이밖에 ‘독립영화, 세상 속에 길 찾기’, ‘독립영화 배급, 2009 진화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대담이 마련된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영진위가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에 대한 정보는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www.siff.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권해정 기자



## FOCUS ON



〈이리〉

### 장률 감독 특별전 & 필리핀 독립영화 특별전

올해 서울독립영화제는 ‘경계에 선 주변인’ 장률 감독 특별전을 마련한다. 단편 〈11세〉 〈사실〉과 장편 〈당시〉 〈망종〉 〈경계〉 〈중경〉 〈이리〉까지 장률 감독의 전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또 장률 감독 특별전에서는 장률 감독의 이야기를 다룬 우해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張律, 장률〉도 함께 상영된다. 장률 감독과의 특별 대담 또한 마련되어 있다.

장률 감독은 재중동포 3세로 2004년 〈당시〉로 장편 데뷔했다. 그의 작품들은 소통 부재의 언어, 고정된 카메라, 직선으로 구획된 프레임 구성이 특징으로 장률 감독은 이를 통해 감독 자신의 모호한 정체성과 경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張律, 장률〉은 자크 데리다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된다. “강제 이주자들, 망명자들, 고향 상실자들, 유목민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한을, 두 가지 향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죽음과 언어이다.”

이번 특별전을 기획한 김수현 해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장률 감독의 영화를 통해 2009년 현재, 세계화 시대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이번 영화제에선 필리핀 독립영화 7편도 소개된다. 조영각 집행위원장이 “요즘 필리핀 독립영화가 많이 발전했다”며 “영화를 잘 만드니까 기분이 나쁘기까지 하다”고 농을 칠 정도로 수준 높은 작품들. 브리안테 멘도사의 〈도살〉을 비롯해 〈콘셉시온 구역의 범죄자〉 〈방파제〉 〈사랑스러운 멕시코 올리베로스〉 〈칼리무통으로 가는 길〉 〈인디펜던시아〉 〈필리핀 인디오에 관한 짧은 필름〉 등 새로운 필리핀 영화들을 대거 만날 수 있다.

# 〈워낭소리〉 최고 흥행작, 마이클 무어 최고 흥행사

올해 17편의 다큐멘터리 극장 개봉... 자연과 신, 야구 등 소재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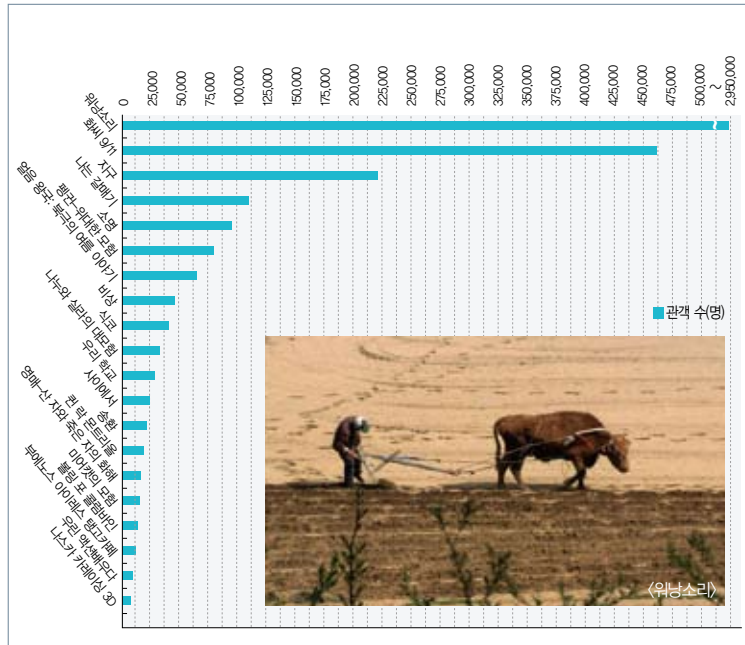
다큐멘터리가 극장 흥행에 성공하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지만, 2009년에는 경상북도 봉화에 사는 늙은 소 한 마리가 그 굵픈 몸을 이끌고 바늘귀를 통과했다. 워낭소리까지 딸랑딸랑 울리면서. 그러니까 〈워낭소리〉의 흥행은 영적으로는 기적이자, 경험적으로는 이번이며, 통계학적으로는 예외다.

올해 1월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가장 상업적으로 취약한 독립 다큐멘터리 한편이 극장가를 강타했다. 입소문에 입소문을 거듭하며 동원한 관객이 무려 3백만 명에 이른다. 이 흥행이 기적이자, 이번이자, 예외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2003년 〈영매-산자와 죽은 자의 화해〉, 2004년 〈송환〉, 2006년 〈사이에서〉, 2007년 〈우리 학교〉로 이어져 온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영화 관객들의 따뜻한 화답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늙은 소 한 마리만 바늘귀를 통과했나 하면 그건 아니다. 올해는 '나는 갈매기'도 바늘귀를 통과했다. 부산이 연고지인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

언츠에 바치는 야구 사랑 '서시' 〈나는 갈매기〉는 10만 8천 명을 모아 '2003~2009년 국내 극장 개봉 다큐멘터리 흥행 상위 20위권' 중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신의 선교사가 브라질 열대 우림 아마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뜨거운 종교영화 〈소명〉이 9만 5천 명을 모아 5위에 올랐다.

다큐멘터리 흥행 순위 5위권에 2009년 개봉작이 무려 3편, 2009년 10월까지 총 개봉편수가 293편인데, 이중 다큐멘터리는 17편으로 5.3%에 이른다. 관객 수는 약 320만 명으로, 전체 관객의 2.5% 선. 〈워낭소리〉가 총 관객수에 기여한 부분이 90% 이상이지만 올해는 〈흙〉 같은 전지구적인 화제작부터 〈야스쿠니〉 같은 역사 다큐멘터리, 〈애니 레보비츠 :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삶〉처럼 걸출한 인물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개봉했다. 2003년 극장을 통해 관객과 만난 다큐멘터리가 단 2편, 2004년 3편, 2005년 4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자면 대단한 진전이다.



다큐멘터리는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극영화나, 그런 배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스타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장르와는 달리 극장 개봉에 있어 화제를 모으는 데 여러모로 한계가 많다. 하지만 때로는 마이클 무어 같은 연예인형 다큐멘터리스트 덕분에 내

놓는 영화마다 화제를 모으기도 한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화씨 9/11〉은 45만 명의 관객을 모아 2위, 〈식코〉는 3만 8천 명을 모아 9위, 〈볼링 포 콜럼바인〉은 13만 명을 동원해 17위에 올랐다.

한승희(영진위 영화정책센터 연구원)

## 2003~2009년 다큐멘터리 개봉작 흥행 베스트 20

순위	영화명	감독	제작국	배급	제작/수입	개봉일	등급	서울스크린 수	전국스크린 수	관객 수(명)
1	워낭소리	이충렬	한국	인디스토리	스튜디오노림보	2009-01-15	전체	14	20	2,929,713
2	화씨 9/11	마이클 무어	미국	스튜디오올러스	스튜디오올러스	2004-07-22	15세	22	-	459,404
3	자구	알래스테어 포더길, 마크 린필드	영국, 독일	엠블러스픽처스	거원시네마	2008-09-04	전체	36	181	216,755
4	나는 갈매기	권상준	한국	롯데엔터테인먼트	드림엔터테인먼트	2009-09-26	전체	16	71	108,725
5	소명	신현원	한국	영화사구안	신현원프로덕션	2009-04-02	전체	1	1	95,871
6	팬권-위대한 모험	릭 자케	프랑스, 미국	튜브엔터테인먼트	유레카픽처스	2005-08-11	전체	12	-	86,623
7	얼음 왕국: 북극의 여름 이야기	티에리 피아타나, 티에리 라고베르트	프랑스, 캐나다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유레카픽처스	2006-07-13	전체	22	-	68,828
8	비상	임유철	한국	이모션픽처스	이모션픽처스	2006-12-14	전체	4	-	39,072
9	식코	마이클 무어	미국	스폰지엔터테인먼트	스폰지엔터테인먼트	2008-04-03	12세	16	30	38,096
10	나누와 실라의 대모험	사라 로버슨, 이담 라베치	미국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유레카픽처스	2007-08-15	전체	10	-	37,676
11	우리 학교	김명준	한국	영화사진진, 한국독립영화협회	스튜디오노림보	2007-03-29	전체	8	-	34,439
12	사이에서	이창재	한국	필름메신저, CJ CGV	다큐코리아	2006-09-07	15세	4	-	24,595
13	송환	김동원	한국	인디스토리, 아트플러스	푸른영상	2004-03-19	12세	4	-	24,032
14	퀵 몬트리올	사울 쉬머	영국	씨에이엔	씨에이엔	2009-07-30	전체	4	6	18,004
15	영매-산자와 죽은 자의 화해	박기복	한국	엠엔에프씨	엠엔에프씨	2003-09-05	12세	6	-	17,200
16	미어캣의 모험	제임스 허니본	영국	예지럼엔터테인먼트	예지럼엔터테인먼트	2009-08-06	전체	11	62	13,592
17	볼링 포 콜럼바인	마이클 무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라임픽처스	스폰지	2003-04-25	15세	3	-	13,279
18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카페	미구엘 코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미국	영화사진진	영화사진진	2008-11-06	전체	3	3	10,339
19	우리 액션배우다	정병길	한국	KT&G상상마당, (주)노디스	앞에있다	2008-08-28	12세	4	9	9,621
20	나스카 카레이싱 3D	사이먼 윈서	캐나다, 미국	CJ CGV	CJ CGV	2006-03-30	전체	1	-	8,822

\* 출처: 각년도 '한국영화연감' 및 영화산업 통계